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58호 [루체 제25136호] 주제 104 (2015)년 12월 24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와 제671대련합부대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을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
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와
제671대련합부대 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을 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훈련장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인민무력
부장인 유헌대장 박영식동
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유헌대장 리영길동지, 조선
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
장 겸 전투훈련국장인 유헌
중장 방관복동지, 조선인민
군 제526대련합부대 부대
장인 유헌중장 최두용
동지, 정치위원 유헌중장
윤희환동지, 조선인민군 제
671대련합부대 부대장인
유헌중장 강순남동지, 정치
위원 유헌소장 김정철동지
가 맞이하였다.

각급 부대의 지휘관들이
훈련을 보았다.

훈련은 기계화부대들 파
방어부대들 사이의 차단물
설비 및 극복을 위한 쌍방



실동훈련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조직진
행하여 지난해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
부대와 제671대련합부대 사이에 진행한
쌍방실동훈련 이후 기계화부대들의 높아진
전진보장능력을 확정하고 겨울철조건에
맞게 전진보장과 차단물설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찾아 대책을 세우며 전군에
배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시조
에서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
하시고 훈련을 보시였다.

훈련이 시작되자 조선인민군 제671대
련합부대에서는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
부대의 공병구분대들이 설비한 각종 차단
물들에 대한 정찰을 진행한데 이어 경보

병구분대 전투원들을 급파하여 기동로를
지배하는 주요거점들을 습격, 장악하였으
며 전진보장구분대들이 차단물을 격파하
하기 위한 전투행동을 진행하였다.

기동로상에서 조선인민군 제671대련합
부대 기계화부대들의 진출을 불허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 방어
부대들의 통합화력타격이 진행되었다.

기계화부대들을 타격하기 위하여 무장
직승기들이 날아들었다.

조선인민군 제671대련합부대 기계화부
대들은 각종 화력타격수단들을 이용하여
포, 무장직승기들을 소멸하였으며 차단물
통로가 개설되자 일제히 공격으로 이행하
면서 방사포를 비롯한 각종 자행포들로
대상을들을 정확히 격파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천지를
진감하는 요란한 폭음과 타래처오르는 불
기동, 짙은 연기속에서 치렬하게 진행되는
쌍방실동훈련을 보시고 방어와 공격이
나무랄데가 없다고 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에
조선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와 제671대
련합부대 사이의 쌍방실동훈련을 보면서
제시한 과업들을 관찰하기 위해 올해에
인민군대에서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
붙여 강도높은 훈련을 진행하였다는것이
알린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앞으로
도 이런 훈련을 많이 조직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
군 제526대련합부대와 제671대련합

부대가 오늘훈련을 통하여 적들의 불의
의 침공을 제때에 격파분쇄하고 공격에
로 이전할수 있는 원檄한 방어와 강력한
공격능력을 갖추었다는것을 남김없이
교시하였다고 하시면서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전투훈련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훈련
제일주의방침판철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실전환경에 접근된 실용적훈련을 진행하
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싸움이 전투
훈련교련대로만 진행되지 않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실용적 훈련

에 힘을 넣어야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이 머리를
많이 쓰게 되고 명백하고
신속정확한 결심을 내릴수
있으며 싸움의 그날 부대를
승리에로 이끌 수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치렬하고 엄혹한 전쟁에
대처 하자면 실용적 훈련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하시
면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멋따기식 훈련, 현대 전
의 요구와 양상, 부대의
전투임무수행의 특성에 맞
지 않는 훈련은 백번, 천번
해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
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휘관
들과 훈련일군들의 책임성
과 역할을 더욱 높일대
대한 문제, 지휘관, 참모
부 일군들이 공격과 방어
에서 제기될수 있는 각이
한 정황들을 깊이 연구하
여 일단 전투가 벌어지면
주도성, 창발성을 높이 발
휘할대 대한 문제, 군종,
병종, 전문병부대들사이의
긴밀한 협동을 완성하고

전투행동의 불의성과 신속성, 일치성과
정확성을 보장할대 대한 문제, 계절과
기후, 주야에 관계없이 작전수행능력을
높일대 대한 문제, 군인들을 실지 싸움
마당에서 써먹을수 있는 전투행동조법에
숙련시킬대 대한 문제, 전진보장구분대
들의 장비현대화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대 대한 문제 등 싸움준비완성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에
서 당의 훈련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
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전투력강화
와 싸움준비완성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
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청춘의 리상도 조국보위에, 가정의 행복도 원군의 길에

선군의 블은기아래 사회주의만복이 꽂핀다

세상사람들은 우리 조국을 선군조선이라고 부른다. 이 땅 위에 떨쳐지는 위대한 인민 사랑의 정치를 선군정치, 방방곡곡의 초소와 일터, 마을들로 이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철주야의 빙도를 선군혁명 빙도라고 칭송한다.

선군! 언제부터 이 말은 이 땅 위에 높이 울리기 시작했고 조국의 모든 전변과 함께 인민 생활의 그 고작은 세부가 다 비끼는 시대의 상징으로 되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은 혁사의 온갖 품파를 끌고 승승장구하여올수 있었으며 장군님의 혁신의 강하고 강한 굴기로 있어 우리 군대와 민진은 인류가 알지 못하는 혁사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스물네 전의 뜻깊은 날을 우리는 정녕 잊을수 없다.

하나 감격과 환희에 넘치던 그날에도 우리 다는 물랐었다.

어떤 최악의 역경이 우리를

기다리고있으며 끊임없이 겪쳐 드는 시련의 난파도 파연 무었으로 헤쳐나가게 될것인지.

역사에 류례없는 고난을 맞았던 우리 장군님께서 높이 드신 선군의 불은기.

그것은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사회주의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날뛰는 제국주의 부수들의 광증을 쳐갈기고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비분에 울던 인민을 일으켜세운 보건이며 힘이였다.

지금은 사랑앞보다 총알이 더 쿠중한 때라고 하시며 천리방선초소를 깨우는 군인들을 찾아가 나라의 높고 험한 땅은 다 넘으시고 생의 미지막 순간까지 수수한 아전복차림으로 선군길을 이어가신

역사의 폭풍우속에서 조국을 걸고 사수하하신것만도 만대의 청승을 받을 불멸의 업적이다. 희한하게 일파선 새 거리를 찾으시고 방방곡곡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를 대하실 때마다 걱정에 젖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고 선군길에 바치신 장군님의 고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시는것이 아니라.

조국의 바다 위에 황금해역사창조의 정체한 선언이 울려

펴지면 역사의 그날에도 우리 원수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오늘 끝고기대 풍을 마련해 놓고보니 위대한 수령님의 단고공상파 철령, 오성산을 넘나드시면 위대한 장군님의 현신으로 고가 어려운다고,

오늘 동두들이 이 안아온

이 물고기대 풍은 위대한 원수님께서 높이 물려주신 고귀한 유산이라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높이 푸른기둥을 일으킨 원수님의 불은기.

그것은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사회주의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날뛰는 제국주의 부수들의 광증을 쳐갈기고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비분에 울던 인민을 일으켜세운 보건이며 힘이였다.

지금은 사랑앞보다 총알이 더 쿠중한 때라고 하시며 천리방선초소를 깨우는 군인들을 찾아가 나라의 높고 험한 땅은 다 넘으시고 생의 미지막 순간까지 수수한 아전복차림으로 선군길을 이어가신

오는 청류다리에서 서면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21년전 가을 평양시에 청류다리(2단계)와 금동 2동굴을 건설함에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51호로 전세계를 들었다는 그날의 중대보도가 들려오는것만 같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 가

평천황금해의 『이제어경』

으로 인민군초소들과 집집의

식락에 사회주의바다탕기 넘

는 흐뭇한 광장을 미루할 때

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주체 100(2011)년 12월 인민들에 물고온

승리공화국의 『봉기론』은

공급함에 대한 대책안을 비준

하시며 기쁨을 금지 못하였

을 위대한 장군님의 한미소

은 더 억척같이 다쳐졌다.

역사의 폭풍우속에서 조국을 걸고 사수하하신것만도 만대의 청승을 받을 불멸의 업적이다. 희한하게 일파선 새 거리를 찾으시고 방방곡곡에서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를 대하실 때마다 걱정에 젖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시였다.

그것이 알았던 무르익어 오

는 놀이 행복으로 물려나고 있다.

이 땅, 이 하늘 아래 그 어디에 서보아도 좋다.

대통장기 속에 펼쳐진 사회

주의 문명이 황홀경으로 안겨

한 불씨이고 일터마다 꽂이는

자랑과 위훈도 그이의 간곡한

유언은 원천을 둔 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과 마음도

쉽결도 함께 그이의

선군길을 따라 걸으며 부르던

인민의 노래는 오늘도 이 땅

에 메아리친다.

행복이 오는 길을 우리는

알아

불같이 오는 길을 우리는

알아

선군의 한길을 따라 이 땅에

행복이 오네

승리의 언덕에 올라 걸어온

자족을 보니

장군님 폭풍우만리 헤쳐가신

선군의 길로

아 우리 행복이 오네 우리

행복이 오네

...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펼생

의 의지로 안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도로

하여 더욱 눈부시게 이룩되는

우리 조국의 기적과 전변을

보며 위대한 장군님을

다시금 확신

주신 바로 그 땅이 아닌가.

무엇이나 프로그램대로 척

척 만들어내는 CNC화의 열풍

도 그이께서 간고한 시련속에

서 지켜주신 부강번영의 소중

한길에 젖어든다.

선군의 불은기아래 사회

주의만복의 꽃이 피고 열매가

무르익히는것을.

본사기자 허명숙

신념과 의 chí로 이어가는 원군길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 일군들과 아래단위 종업원들

얼마나 많은 인민군부대들에 가당하고 인민군군인들의 건강과 싸움준비에 크게 이바지하였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원호사업에서 모범을 보이던 한 행정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은 우리의 운명이 인민군대에 달려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군대를 강화하며 원호하는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얼마전 보건성 의료기구공업관리국이 어느 한 단위의 혁명자료집을 펼쳐들었던 우리는 그 갈피에서 단위가 결코 끝이 되어버렸다.

이 단위는 창설초기인 지난 세기 80년대 말부터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해왔다.

그러던 10여년 전 겨울 어느 날이었다.

당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단위사업을 맡아야만 했던 리영월은 한 단위에 대한 원군의 거리와 마음을, 가장 먼저 일을 짓을 끝마친 원군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는 각오였다.

몇해전 의료기구공업관리국의 책임일군으로 성장한 리영월은 철동무는 일군부대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온 원군의 길을 벤하고는 신념의 길로, 의리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초 일군원호사업은 천연기념물로 선정되었지만 그 단위에 대한 원호사업을 국적인 사업으로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

선군의 기지높이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여

민족수호의 강력한 보검인 선군정치에 의해 평화와 통일, 민족번영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 우리 민족의 이상과 최상의 경지에 이를 오늘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4호를 맞이한 온 겨례의 기습과는 딱히 없는 감사와 경포의 정에 휩싸여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김정일동지께서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은 우리 혁명 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더불어 천후 만대에 걸쳐 빛날 것입니다.』

일제기총대로 개척된 우리 혁명을 총대로 꽂까지 완수하시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간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창적인 선군정치로 세국주의 철학세력을 거듭되는 반통일도전과 해전정도발령 등을 단호히 물리치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조선반도의 평화를 톈대로 수호하신 것은 민족사에 영원히 아로새겨질 불朽의 공적이었다.

우리는 지금도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길지와 자부심을 갖고 조국과 민족앞에 가로놓인 준엄한 시련을 헤쳐나가면서 주제 8·2(1993)년의 나날들을 감회깊이 둘러이 kobet.

당시 제국주의자들과 반통들은 동유럽의 일부 나라들에서 자본주의가 북극권 사태를 놓고 미치자 주주의가 『종말』을 고한 것처럼 떠돌아면서 우리 공화국도 그렇게 될것이라는 잠꼬대 같은 요성을 내둘렀다. 특히 미국은 핵문제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강도적 계획을 짜놓고 국제자기주권구를 내세워 부당하게도 『특별사찰』소동을 일으켰다. 내외호전광들은 위험천만한 북침에 시험전쟁인 『임스피리트』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고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기습타격』을 깨우쳤다. 그리고 미군과 공화국을 힘으로 위협해 나섰다. 핵무

기를 적재한 신형전투기들과 함선, 각종 해타격수단들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수역에 대대적으로 쏟아들었으며 미 국부토와 팔도, 하와이 등의 미군기지들에서 신속 반응전개무력을 비롯한 20여만의 대병력이 분주왕을 피웠다.

온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조선반도정세를 지켜보았다.

파연 핵무기를 거두려고 세계에서 제노라 하는 미국과 조선의 대결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하지만 세계는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단련, 뛰어난 힘과 군수물과 비범한 지략을 지니신 배우의 천 출명장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얼마나 양센 승리의 신심과 투지가 울솟을고 있는가를 다는 물었다.

미제호전광들이 전쟁의 불문치를 들고 미친듯이 날뛰면 바로 그때 침략자들을 전율케 하는 추상같은 선언이 평양에서 울려나왔다.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잊고 떠나온 것은 자연재해로 뮤비에 않는 슬픔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선군의 위력으로 광활히 헤쳐나가셨다. 주제 8·4(1995)년 1월 1일 다크출초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신 그이께서는 선군의 충대를 따라 침략자들이 세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험신히 지키는 애국의 충대, 강위력한 보검으로 더욱 종세력을 끌어워취시였다.

연체인가 험난한 전선길에서 일군들과 마주앉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인민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는 것은 우리 혁명 앞에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치켜내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때였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그것을 구걸하지 않는다. 원쑤들은 공화국의 한치의 향, 한포기의 풀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이것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몸져 암살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멍렬의 퇴성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었다.

우리를 충족시킬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잊고 떠나온 것은 자연재해로 뮤비에 않는 슬픔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선군의 위력으로 광활히 헤쳐나가셨다. 주제 8·4(1995)년 1월 1일 다크출초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신 그이께서는 선군의 충대를 따라 침략자들이 세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험신히 지키는 애국의 충대, 강위력한 보검으로 더욱 종세력을 끌어워취시였다.

연체인가 험난한 전선길에서 일군들과 마주앉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인민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는 것은 우리 혁명 앞에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치켜내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때였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그것을 구걸하지 않는다. 원쑤들은 공화국의 한치의 향, 한포기의 풀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이것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몸져 암살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멍렬의 퇴성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었다.

우리를 충족시킬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잊고 떠나온 것은 자연재해로 뮤비에 않는 슬픔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선군의 위력으로 광활히 헤쳐나가셨다. 주제 8·4(1995)년 1월 1일 다크출초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신 그이께서는 선군의 충대를 따라 침략자들이 세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험신히 지키는 애국의 충대, 강위력한 보검으로 더욱 종세력을 끌어워취시였다.

연체인가 험난한 전선길에서 일군들과 마주앉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인민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는 것은 우리 혁명 앞에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치켜내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때였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그것을 구걸하지 않는다. 원쑤들은 공화국의 한치의 향, 한포기의 풀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이것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몸져 암살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멍렬의 퇴성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었다.

우리를 충족시킬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잊고 떠나온 것은 자연재해로 뮤비에 않는 슬픔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선군의 위력으로 광활히 헤쳐나가셨다. 주제 8·4(1995)년 1월 1일 다크출초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신 그이께서는 선군의 충대를 따라 침략자들이 세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험신히 지키는 애국의 충대, 강위력한 보검으로 더욱 종세력을 끌어워취시였다.

연체인가 험난한 전선길에서 일군들과 마주앉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인민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는 것은 우리 혁명 앞에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치켜내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때였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그것을 구걸하지 않는다. 원쑤들은 공화국의 한치의 향, 한포기의 풀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이것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몸져 암살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멍렬의 퇴성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었다.

우리를 충족시킬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잊고 떠나온 것은 자연재해로 뮤비에 않는 슬픔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선군의 위력으로 광활히 헤쳐나가셨다. 주제 8·4(1995)년 1월 1일 다크출초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신 그이께서는 선군의 충대를 따라 침략자들이 세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험신히 지키는 애국의 충대, 강위력한 보검으로 더욱 종세력을 끌어워취시였다.

연체인가 험난한 전선길에서 일군들과 마주앉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인민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는 것은 우리 혁명 앞에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치켜내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때였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그것을 구걸하지 않는다. 원쑤들은 공화국의 한치의 향, 한포기의 풀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이것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몸져 암살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멍렬의 퇴성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었다.

우리를 충족시킬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잊고 떠나온 것은 자연재해로 뮤비에 않는 슬픔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선군의 위력으로 광활히 헤쳐나가셨다. 주제 8·4(1995)년 1월 1일 다크출초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신 그이께서는 선군의 충대를 따라 침략자들이 세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험신히 지키는 애국의 충대, 강위력한 보검으로 더욱 종세력을 끌어워취시였다.

연체인가 험난한 전선길에서 일군들과 마주앉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인민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는 것은 우리 혁명 앞에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치켜내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때였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그것을 구걸하지 않는다. 원쑤들은 공화국의 한치의 향, 한포기의 풀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이것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몸져 암살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멍렬의 퇴성이었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었다.

우리를 충족시킬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잊고 떠나온 것은 자연재해로 뮤비에 않는 슬픔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선군의 위력으로 광활히 헤쳐나가셨다. 주제 8·4(1995)년 1월 1일 다크출초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신 그이께서는 선군의 충대를 따라 침략자들이 세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험신히 지키는 애국의 충대, 강위력한 보검으로 더욱 종세력을 끌어워취시였다.

연체인가 험난한 전선길에서 일군들과 마주앉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인민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는 것은 우리 혁명 앞에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치켜내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때였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그것을 구걸하지 않는다. 원쑤들은 공화국의 한치의 향, 한포기의 풀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이것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몸져 암살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멍렬의 퇴성이었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었다.

우리를 충족시킬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잊고 떠나온 것은 자연재해로 뮤비에 않는 슬픔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선군의 위력으로 광활히 헤쳐나가셨다. 주제 8·4(1995)년 1월 1일 다크출초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신 그이께서는 선군의 충대를 따라 침략자들이 세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험신히 지키는 애국의 충대, 강위력한 보검으로 더욱 종세력을 끌어워취시였다.

연체인가 험난한 전선길에서 일군들과 마주앉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인민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는 것은 우리 혁명 앞에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치켜내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때였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그것을 구걸하지 않는다. 원쑤들은 공화국의 한치의 향, 한포기의 풀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이것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몸져 암살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멍렬의 퇴성이었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었다.

우리를 충족시킬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잊고 떠나온 것은 자연재해로 뮤비에 않는 슬픔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선군의 위력으로 광활히 헤쳐나가셨다. 주제 8·4(1995)년 1월 1일 다크출초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신 그이께서는 선군의 충대를 따라 침략자들이 세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험신히 지키는 애국의 충대, 강위력한 보검으로 더욱 종세력을 끌어워취시였다.

연체인가 험난한 전선길에서 일군들과 마주앉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인민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는 것은 우리 혁명 앞에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치켜내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때였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그것을 구걸하지 않는다. 원쑤들은 공화국의 한치의 향, 한포기의 풀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이것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몸져 암살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멍렬의 퇴성이었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었다.

우리를 충족시킬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잊고 떠나온 것은 자연재해로 뮤비에 않는 슬픔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엄혹한 시련의 나날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과 혁명의 앞길에 가로놓인 난국을 선군의 위력으로 광활히 헤쳐나가셨다. 주제 8·4(1995)년 1월 1일 다크출초에 대한 현지시찰을 진행하신 그이께서는 선군의 충대를 따라 침략자들이 세 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민족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험신히 지키는 애국의 충대, 강위력한 보검으로 더욱 종세력을 끌어워취시였다.

연체인가 험난한 전선길에서 일군들과 마주앉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인민군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는 것은 우리 혁명 앞에 사회주의를 지키는가 치켜내지 못하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때였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결코 그것을 구걸하지 않는다. 원쑤들은 공화국의 한치의 향, 한포기의 풀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이것이 최고사령관동지의 두리에 굳게 몸져 암살같이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멍렬의 퇴성이었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는 핵무기 전파방지 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발표되었다.